

##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 국악과 정치의 만남

김기형 | 고려대 국문과 교수

진정 독도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당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러한 근거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가를 밝히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실증하여 논란의 싹을 없애야 한다.

### 〈독도! 문화로 지킨다!〉 행사장에서

2005년 6월 7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독도! 문화로 지킨다!〉 행사가 있었다. 행사가 있기 얼마 전부터 국악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별맞이터로 향했다. 별맞이터는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이다. 일반적으로 야외공연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 무대와 청중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판’ 혹은 ‘마당’으로 상징되는 전통공연 공간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국립극장 내 야외극장인 하늘극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맨 앞쪽에 무대가 있고 그 뒤쪽으로 객석이 있는 별맞이터는 야외무대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한 듯해서 아쉬움을 주는 곳이다. 지붕 없는 무대극장이라고나 할까. 무대의 위치도 매우 낮아서 청중석 중간쯤에서는 무대의 일부가 보이지 않기도 한다. 무대만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면 한결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사면이 탁 트여 있는 데다 저녁 때가 되자 날씨도 선선해져 판을 벌이기가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입구에서 행사 팸플릿과 붉은 두건을 나누어주었는데, 붉은 두건은 새겨진 문구만 다를 뿐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익숙하게 보아 오던 바로 그것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함께 하며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2002년도에 그 붉은 물결의 감동을 오늘 이 자리에 잇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한 진행자가 나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독도, 무엇으로 지킵니까?” 청중들은 일제히, “문화로요”라고 답한다. 그 진행자가 〈독도 수비대가〉를 가르쳐주고 물러나자,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구영희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자가 사회를

말았다.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행사의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획 있는 대로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고 계몽적인 연사를 길게 해서 행사가 다소 지루해짐은 어쩔 수 없어 보였다.

서예가 임호가 커다란 한지에 '獨島守護韓民族文化運動'이라고 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가 쓴 글씨를 무대 양옆에 늘어놓으니 한결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어 창작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슬기둥의 노래 <축제>가 고조된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해주었다. 그런데 무르익은 분위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곧 이어 국회 독도수호특위 소속 국회의원, 국립국악원장 등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역사 왜곡 주권 침해 일본의 망언, 망동에 국민은 분개한다"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독도를 지키는 힘을 문화와 예술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는 생명력이 끈질기게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등등, 사회자가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자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독도에는 여야가 없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지만 문화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독도는 정치, 외교의 문제가 아니고 영토 주권의 문제다"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 등의 내용으로 축사를 하였다. 준비된 공연은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이미 상당히 지나가 버려, 그야말로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문' 형국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중가수 신형원과 소리랑의 노래,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창작 무용 <독도를 향해 가리라>, 안숙선의 단가 <독도 총렬가>와 창작관소리 <안중근 열사가>가 뒤를 이었다. 신형원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터> 등의 노래를 불러 호응을 얻었으며, 무용단은 이사부의 기운을 다시 불러온다는 의미를 담은 창작 무용을 선보였다.

팽과리, 장고, 징 반주에 맞추어 남성은 힘있게 추고 여성은 살풀이조로 애잔하게 추었는데, 남녀의 조화로운 춤동작 속에서 이사부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정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잘 표현되었다.

안숙선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시대 대표적인 판소리 명창인데, 이날 김병준이 작사하고 자신이 곡을 붙인 <독도 총렬가>와 해방을 전후하여 불려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창작관소리인 <안중근 열사가>를 불렀다. 그런데 두 작품 모두 지나치게 비장 일변도이고 교술적 성격이 강한 사설로 짜여져 있어,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안타까운 그 무엇이 있었다.

이어서 조정래, 유홍준, 이금희, 신우승, 김정명(독도 사진가), 김미화, 김점구(독도수호대), 광영희(홍순필 부인), 유인촌, 이종상(독도문화심기운동본부장) 등이 전하는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동국여지승람』 등에 실린 기록을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음을 보여주었으며, 독도수비대원이었던 홍순필 대원의 육성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는 정회천 전북대 교수가 KBS PD로 재직하던 1985년 그를 취재하면서 녹음해 둔 자료라고 한다. 영



<독도! 문화로 지킨다!> 행사 포스터

“독도, 무엇으로 지킵니까?” 청중들은 일제히, “문화로요”라고 답한다.  
 “문화는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지만 문화인에게에는 국경이 있다”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

상 메시지를 통해 강조된 내용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독도수호운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문화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영상 메시지 소개가 끝나고 원래는 김용우와 조주선이 공연할 차례였는데, 극단 현장의 마당극 <독도 지킵이>가 먼저 공연되었다.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작품은 청중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침으로써 일본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리고 결말에 가서는 청중들과 함께 <독도수비대>를 부르면서 극중 인물이 만파식적을 붙어서 일본을 제압하는 것으로 끝났다.

### 독도 문화연대 발족식 열려

행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500여 명 이상이 죽히 되던 청중들이 행사가 길어지자 점차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빠져나가는 청중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김용우는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인 <임진강> <비무장지대> <홀로아리랑> 등을 불렀으며, 조주선은 <논개> <봉화아리랑> 등을 불렀다. 이들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실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소리꾼으로,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정된 곡 이외에 청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른 곡을 더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아쉬울 뿐이었다.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독도 문화연대 발족식’이 열렸다. 김선풍 중앙대 교수가 낭독한 ‘독도 문화연대 발족 선언문’의 주요 골자는 다음의 3가지였다.

“독도를 우리 생활 속에 노래하고 꽃피게 하자.”  
 “독도와 문화예술이 하나 되게 하자.”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전경)

“독도가 온누리에 등불이 되게 하자”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국회 대책 특별위원회와 국립국악원 국악방송이 공동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한국방송공사, 서울문화재단, 독도박물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말 그대로 “독도를 문화로 지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독도 문화연대’를 발족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현실정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이른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나 ‘~위원회’ 등의 조직이 자주 생겨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 구도 속에서 활로를 찾기 어려운 집권세력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적인 지향점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이념적, 정치적 의도를 전 국민적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천 활동의 키워드로 ‘독도’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그 주

체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이라는 점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자발적 친일분자를 제외한다면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이 시점에서, “독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 지일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독도는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으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 땅임이 분명한 불변의 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그 동안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경제적 실익에서 비롯된 타협적 대응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불변의 진실이 아닌 상대적 진실이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뒤늦게나마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민적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독도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는 데 있다.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국회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어차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어떤 국회의원이 “한류 스타들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면 좋겠는데,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거나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는 구호를 강조한 것에 일말의 우려를 감추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류 스타들은 이미 그들의 방식대로 충분히 애국을 하고 있는 셈이며, 그들의 행동 영역을 넓혀주고 우리 문화를 동아시아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일종의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사안에 접근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 스타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니, 이젠 정치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진정으로 민족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구호를 외치며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진작부터 “그 누구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을 소리 높여 노래했어도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군국주의적 색채마저 강화되면서 망언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 진정 독도를 지키는 길은?

그렇다면 진정 독도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당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러한 근거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가를 밝히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실증하여 논란의 싹을 없애야 한다. 그와 더불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의 양심 세력 등과 협력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을 반성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물에 빠진 일본인이 있었다. 옆에 한국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같이 독도 문제로 양국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사람이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한국사람은 그 일본인이 외친 말에 격분하여 그를 물속에서 구해내었다는 것이다.

“독도를 우리 생활 속에 노래하고 꽃피게 하자.”

“독도와 문화예술이 하나 되게 하자.”

“독도가 온누리에 등불이 되게 하자”

— ‘독도 문화연대 발족 선언문’ 중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어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 가는 일본인의 목숨을 살린 꼴이 된 것이다. 물론 어느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공연히 분개하여 사태를 더욱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정서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니 자칫 불안해 보이기도 하다.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고 했지만, 그러한 구호에 담겨 있는 정치적 함의가 위험해 보인다는 말이다. 이번 행사의 성격뿐만 아니라 ‘독도 문화연대’의 발족을 우리 시대의 문화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1970~80년대에 사회 변혁의 한 부문운동으로 존재했던 문화운동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1970~80년대의 문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중성’을 기저에 깔고 있었으며, 부도덕한 기성문화를 비판하는 저항문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마당극, 창작 탈춤, 창작 판소리,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의 약칭) 등을 통해 시대정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운동은 이 시기 비중 있는 사회 변혁 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민중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호흡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했던 1970~80년대의 문화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독도를 지키자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예술인·비예술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이 전면에 나서 이런 행사를 주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때 현실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라 해도 일단 제도권에 속하게 되면 제도권의

틀 내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

이번 <독도! 문화로 지키다!> 행사에 마당극, 창작 무용 등도 공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국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거의 도맡아 연주했고, 안숙선, 김용우, 조주선 같이 대중적인 인기와 지명도가 있는 국악 스타들이 대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분단 상황이나 항일열사의 삶의 궤적 그리고 왜장을 안고 장렬하게 전사한 순국선열의 아름다운 열정 등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노래 자체가 주는 일정한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개운치 못한 뒷맛을 갖게 된 것이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비장미가 우세하고 계몽적 요소가 강조될수록 예술적 감동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안숙선 명창이 불렀던 <안중근 열사가>는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민족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아 의식 있는 소리꾼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면서 오늘날에까지 전승되고 있는 창작판소리이다. <안중근 열사가>를 비롯하여, <유관순 열사가> <이준 열사가> 등과 같은 ‘열사가’ 류의 작품은 식민지 상황이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열사가 류는 3·1절이나 현충일과 같은 기념일이나 불리는 소리가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날 사회자는 문화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했다. “문화는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화로 독도를 지키자”는 말과 모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문화는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음악을 계몽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삼갔으면 좋겠다. 문화가 정치와 가까워지면 본래의 모습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